

사회

‘연말 특수’ 모텔·나이트클럽·대리운전 ...

바가지 상흔 극성 “부르는 게 값”

악덕상술에 화난 손님 주먹다짐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숙박업소와 유혹업소 등 일부 반짝 특수를 누리는 업계의 바가지 요금에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대리운전 기사도 웃돈 요구가 기본이다. 나이트클럽은 입장이 가능한 기본 주류비용을 올려보았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지만,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대학생 김모(2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며 하루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김씨는 광주 지역 모텔에 전화할 건 뒤 비싼 요금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평소 평일 4~5만

원하던 요금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업주의 말 때문이었다. 이는 다른 모텔 5~6군데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지역 숙박업소는 평소 숙박에 3만~10만원, 대실 2만~5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성수기를 맞아 숙박 6만원~17만원, 대실은 4만원~7만원이며 대실이 아예 불가능한 업소도 있었다.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현행법상 요금표가 안내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지만 요금은 업주가 임의로 책정하는 등 금액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어 성수기를 이용해 바가지 요금이

되풀이되고 있다. 늦은 밤 취객을 상대로 한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 기간에는 웃돈을 요구, 손님과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7시25분께 박모(48·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귀가 중 웃돈을 요구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까지 휘둘러 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시내 기본요금인 1만원인데 대리기사 가 1만5000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나이트클럽도 지난 24일, 입장이 가능한 기본 세팅 비용을 평소보다 높게 올렸다. 클럽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동구 모 나이트클럽은 일명 ‘튠’ 사용비용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주들은 대목을 놓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 주인은 “식당처럼 회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숙박 손님은 한 방에 한 커플밖에 받지 못하는데 일년에 며칠 안되는 대목까지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면 어떻게 운영하란 말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요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어렵기 때문에 성수기를 이용한 악덕상술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숙박업소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화관광관의 클릭숙박업소현황을 이용한다면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기동 구례군수 사전영장

광주지검, 수뢰 혐의 ... 뇌물 건넨 공무원 구속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서기동(61) 구례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서군수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9일 승진 인사 및 요양원 공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한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임씨를 서군수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했

다. 서군수는 또 구례 모 요양원 공사에 참여한 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2008년 건립돼 올해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서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 조치했다. 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서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08) 김장두



모텔 중업원의 '기막힌 빵땅'

투숙객엔 현금 받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 주인 숙이고 곧바로 취소 4000만원 채거

광주 시내 한 모텔의 중업원 양모(35)씨. 양씨는 지난해 1월 기발한 범행 하나를 생각해 냈다. 손님이 현금으로 낸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기로 한 것이다. 양씨는 지난해 1월 31일 밤 11시께 범행을 실행했다. 투숙객이 현금 4만원을 내자 자신의 신용카드로 4만원을 결제한 뒤 곧바로 거래를 취소했다. 양씨의 범행에는 자신에 대한 모텔 주인의 두터운 '믿음'도 한 몫을 했다. 주인은 숙박비 결산 과정에서 액수 등을 따지지 않고 매출전표 숫자 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양씨가 이렇게 빼돌린 숙박비는 모두 4400만원 남짓. 모텔 취

업 3개월 뒤인 지난해 1월부터 1년8개월간 하루 1~4차례씩, 총 1021차례나 돈을 빼돌려 유혹비로 썼다. 하지만 양씨는 이상한 검색을 느낀 주인의 추궁에 의해 결국 달미를 잡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민섭 관사는 29일 양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9월 숙박비를 삼중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이 4000만원 이상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3개월 가량 구금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박 어선 3척 불 타

29일 새벽 1시50분께 여수시 종화동 하행등대 앞 해상에 정박중이던 전모(69)씨의 6.67t급 어선 A호에서 불이 난 것을 주민(34)이 발견, 119와 해경에 신고했다. 이 불은 A호의 갑판과 조타실 등을 태운 뒤 옆에 정박해 있던 어선 2척에 옮겨 불이 78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술이 웬수” 40대 경찰서 알몸 소동

○...재물손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한바탕 소동.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1)씨는 이날 오후 경찰서 행사과 내 조사대기실에서 “빨리 조사를 시작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술에 취해 이날 새벽 5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주택가 앞에서 택시를 발로 차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박씨에 대해 재물손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택시·승용차 충돌 택시기사 중상

29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57·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또 다른 김모(30)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김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K7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현장을 벗어나 서구 모 병원을 거쳐 북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 체육회 송년회. 광주시장애인 체육회 송년회가 29일 오후 서구 치평동 조선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세계장애인 탁구대회와 광주우 아시안게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스키 초보자, 앞사람과 충돌 사고 100% 책임”

능력에 맞지 않는 스키장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사고를 낸 초보 스키자에게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단독 김

수영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 초보자 김모(여·23)씨에게 부딪쳐 다친 김모(여·37·전 스키강사)씨가 가져다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 때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습스

고시원서 헬륨가스 흡입

20대 男 유서 쓰고 자살

지난 28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고시원에서 최모(29·북포시 산정동)씨가 숨져있는 것을 고시원 주인 김모(여·5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최근에

보이지 않아 보조기를 이용해 방에 들어가봤더니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최씨는 용량 22.5ℓ의 헬륨가스통 2개와 연결된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다. 또 최씨의 바지 호주머니에서는 ‘똥남 놔 먼저 가니 슬퍼하지 마라.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게 합당하다’라고 쓴 유서가 발견됐다. /양수현기자 yang@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합격! 최강퍼펙트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Table with 8 columns: 7급 종합반(이론), 9급 종합반(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검찰직,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명품 '강력단과', 포함 소망직(전문). Each column lists exam details, dates, and contact info.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개강 1월 3일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